

EPL 2026/27 시즌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이번 주말 경기 몇 시야?” 이거잖아요. 근데 막상 검색해보면 매번 헛갈려요. 같은 EPL이어도 평일이라 주말 킥오프가 기본값이 다르고, 지역 방송이나 컵대회, 중계 편성에 따라 “기본값 예외”가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 방식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기 자체보다 “시간표를 읽는 규칙”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축구중계, 해외축구중계 찾을 때도 흔들릴 일이 확 줄어요.

아래 내용은 EPL 2026/27을 기준으로, 공식 일정의 큰 흐름(시작일, 마지막 라운드)과 킥오프 시간표를 읽는 [epi중계](#) 핵심 규칙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날짜의 모든 경기별 킥오프를 “확정표”처럼 다 적어드리긴 어려운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글에서 다룰 근거가 되는 확인 가능한 사실은 “시즌 구성과 기본 킥오프 규칙”까지이고, 경기별 세부 편성표 전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시간표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한국 시청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EPL 2026/27 큰 일정, 시작은 언제고 끝은 언제나부터

EPL 2026/27은 공식적으로 총 380경기로 구성되고, 시즌은 2026년 8월 21일 시작해서 2027년 5월 30일에 최종 라운드를 동시에 킥오프하는 구조예요. 이걸 축구중계 보려는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연간 달력”을 깔아야, 중계 시청 습관이 잡히거든요. 저는 보통 시즌 초에는 평일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야근이나 일상 루틴을 조금 조정합니다. 그리고 중반부터는 주말 경기만 모아서 보게 되는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EPL은 매주 굴러가는 리그라, 시즌 시작일과 최종 라운드가 딱 잡히면 “내가 언제까지 몰아봐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 프리미어리그는 홈/원정 맞대결로 각 팀이 시즌 내내 서로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고, 승격·강등 제도가 적용돼요. 이걸 킥오프 시간표를 볼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경기 중요도가 올라가서 중계 편성이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대충” 보면 놓치는 경기들이 생깁니다. 초반에는 기본 규칙을 잡고, 주간 단위로 공식 캘린더를 다시 확인하는 쪽이 편해요.



2026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검 제81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32강전

경기	시간	경기
광주FCU18금호고	17:00	경기수원삼성U18매탄고
경기안양공고	18:40	충남천안제일고
인천유나이티드U18대건고	20:20	경북영덕FCU18

8월21일(금)

3 구장 LIVE STREAM

주최: KFA,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조선일보
주관: KFA, K리그, K리그2, K리그3
후원: KSPOT, 안동시

킥오프 시간표의 핵심 규칙: 주말 15:00, 평일 20:00

EPL 2026/27 일정 발표 기준으로, 킥오프 시간 기본값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주말·공휴일 경기 기본 킥오프: 영국 시간 15:00
- 평일 경기 기본 킥오프: 영국 시간 20:00

- 단, “별도 표기 없을 때” 기준이라서 경기별로 예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봤던 사이트의 시간”이 영국 시간인지, 한국 시간으로 변환된 값인지가 섞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외축구중계 볼 때, 시간을 볼 땐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둡니다.

첫째, 리그 공식 사이트나 fixture/calendar에서 **현지 시간(영국 시간)**으로 확인해요.

둘째, 제가 보는 시간표가 한국 시간으로 바뀌어 보여도, 실제로 변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주말 15:00, 평일 20:00이라는 “기본값”은 어디까지나 1차 필터로만 써요. 실제 경기 확인할 때는 무조건 경기별 표기를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축구중계사이트를 바꿔서 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특히 EPL은 템포가 빠르고 라인업이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킥오프 시간을 한 번만 잘못 맞춰도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한국 시청자가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것: 시간대 변환

이 부분은 사람마다 체감이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변환된 표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내 폰 알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죠. 제 경험으로는 둘 다 맞는 얘기에요. 다만 중요한 건, 시간대 변환은 정보가 섞이면 사고가 납니다.



특히 EPL은 영국 시간(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되는 기본 킥오프가 있고, 한국은 KST(한국 표준시)로 시청하니 까 결국 변환이 필요해요. 문제는 변환이 “항상 같은 차이”로만 고정돼 있진 않다는 점이에요. 시차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오늘 경기” 1경기만, 여러분이 가장 믿는 기준으로 재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 한 경기를 보고 나서 실제 시작 시간과 스트리밍 시작 알림 시간이 맞았는지 체크해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가면 실수 확률이 확 떨어 집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중앙유럽시간(CET/CEST)에서 KST로 바꿔봐야 한다는 안내가 있고, 축구중계 찾는 분들이 시 차 계산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흐름 자체는 EPL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핵심은 “현지 시간 기반을 내 기준 시간으로 확실히 번역한다”예요.

주차별로 보는 실전 팁: ‘기본값’이 주는 여유

EPL 2026/27은 8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매주 경기들이 붙으니, 전체 표를 한 장으로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 저는 “기본값을 이용해 주간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주말 경기들은 기본적으로 영국 시간 15:00이고, 평일은 기본 20:00이라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이 두 값만 잡히면, 나머지는 공식 캘린더에서 “예외가 있는 날”만 골라내면 됩니다. 예외가 있는 날은 보통 공지가 함께 붙는 편이고, 최소한 경기별 표기가 다르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꼭 보고 싶은 팀 경기 시간이 “내 시간으로 언제쯤 시작할지”를 먼저 대충 계산합니다. 그 다음 캘린더에서 해당 경기의 킥오프가 기본값대로인지 확인해요. 기본값이면 그 다음 스텝은 간단해요. 생방으로 갈지, 하이라이트로 넘어갈지 결정하면 됩니다. 하이라이트로 돌리더라도, 경기 시작 시간을 알아야 다음 일정에 영향을 안 줍니다. 결국 킥오프 시간표는 단순히 시청용이 아니라 생활용 일정표가 되는 거예요.

축구중계, 해외축구중계 볼 때 “시간표 확인 순서”가 중요해

EPL 같은 리그는 중계 접근 방식이 다양합니다. 방송권 문제, 실시간 업데이트 차이, 앱 동작 차이 때문에 “어떤 축구중계사이트에서 봤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간을 확인하는 순서를 고정합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면, 해외축구중계를 보면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 먼저 리그 공식 fixture/calendar에서 경기별 킥오프 표기를 확인한다
- 다음으로 내가 보는 중계 채널이 그 경기의 시작과 동일한 시간을 보여주는지 확인한다
- 주말 15:00, 평일 20:00 기본값과 비교해서 예외 여부를 체크한다
- 변환된 한국 시간 알림을 사용할 때는 시즌 초에 1경기라도 실제로 맞는지 검증한다
- 모바일로 볼지 TV로 볼지에 따라 지연과 해설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단축됩니다.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왜 늦지?” 같은 상황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킥오프 시간표를 ‘표’로만 보려다 망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일정표를 엑셀처럼 쭉 보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표는 그 순간의 기준을 보여주지만, 경기 편성은 조정될 수 있어요. “기본값”이 있다고 해서 매번 고정이라고 믿으면, 예외가 터지는 날에 바로 흔들립니다.

EPL 2026/27은 총 380경기 규모라, 주간 단위로 편성된 경기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볼 때 “읽는 단위”를 바꿔요. 예를 들어, 주말에 집중하고 싶으면 주말 날짜만 먼저 훑고, 그다음에 평일을 보강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예외가 생겨도 내 관심 **국내 축구중계** 구간에서 먼저 잡히고, 전체를 다 뒤져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계 플랫폼마다 경기 카드가 뜨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곳은 킥오프만 보여주고, 어떤 곳은 생중계 시작 시간을 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킥오프”와 “송출 시작”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겪고 나서부터, 항상 경기별 표기부터 확인하고 다음에 넘어가게 됐어요.

시즌이 길다는 건, 시청 전략도 길게 잡아야 한다는 뜻

EPL 2026/27은 8월 21일에 시작해서 5월 30일에 최종 라운드로 끝납니다. 그러면 중계 시청도 한 달 단위가 아니라, 최소 두세 달 단위로 리듬을 잡는 게 편해요.

초반에는 팀 전력 정리, 새로운 감독/전술 변화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라 경기를 보는 재미가 커지고요.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정이 촘촘해져서 “어떤 경기까지 볼지”가 핵심이 됩니다. 막바지로 가면 승점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

성이 커지고, 승격·강등 구도는 특히 긴장감이 올라가요. 이때 킥오프 시간표는 더 중요해집니다. 대충 지나가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EPL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규칙(주말 15:00, 평일 20:00)을 기반으로 내 주간 루틴을 세우고, 공식 캘린더에서 예외만 걸러내는 구조.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킥오프 시간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좋아, 규칙은 알겠는데 그럼 이번 주 정확한 몇 시표는 어디서 보냐” 이거죠. 이걸 결국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해야 해요.

이 글에서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건 기본 킥오프 규칙과 시즌 전체의 시작/마감 프레임입니다. 경기별 정확한 킥오프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단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해외 리그 현지 시간(영국 시간)을 KST로 변환해 보는 흐름이 필요해요. 변환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변환 결과가 실제와 맞는지” 한 번 검증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검증 루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짧게 끝내는 방식인데요, 주간에 꼭 챙길 경기 1경기를 정한 뒤, 킥오프 표기와 내가 설정한 시청 알림 시간이 실제 방송 타이밍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축구중계사이트나 앱을 바꿔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체크할 것들

EPL 2026/27 킥오프 시간표를 제대로 보려면, “표 자체”보다 “확인 루틴”이 먼저예요. 저는 해외축구중계를 찾는 분들에게 항상 이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시간표는 매번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 규칙이 있고 예외가 끼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 이번 시즌 시작이 2026년 8월 21일이고, 최종 라운드는 2027년 5월 30일 동시에 킥오프라는 큰 틀을 캘린더에 먼저 넣어두기
- 기본 킥오프는 주말·공휴일 영국 시간 15:00, 평일 영국 시간 20:00이라는 규칙으로 1차 필터 만들기
- 경기별 표기는 공식 fixture/calendar에서 다시 확인하기
- 한국 시청은 시간대 변환을 반드시 하고, 시즌 초에 1경기라도 “실제와 맞는지” 검증하기
- 축구중계, epl중계, 해외축구중계를 볼 때는 중계 채널의 표시가 킥오프 기준인지 송출 시작 기준인지 헷갈리지 않기

이 정도만 잡아두면, EPL 2026/27 시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훨씬 편해집니다. “찾는 시간”이 줄고, “보고 싶은 경기”만 남아요. 그리고 그게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큰 차이입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당신이 주로 보는 요일(주말 위주인지 평일도 보는지)”과 “보는 채널 형태(모바일, TV, 웹)”를 알려주세요. 그럼 EPL 2026/27 기준으로, 기본 규칙을 활용해서 주간 시청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더 현실적으로 맞춰드릴게요.